



HMM, 영종도 거잠포해변 환경정화 활동

HMM이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반려해변인 영종도 거잠포해변에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반려해변 정화활동에는 올해 입사한 HMM 신입사원을 비롯해 임직원, 해양경찰, 덕교어촌계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봉사자들이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있다. /HMM



유한양행, 다문화 아동 위한 동화책 낭독 봉사

유한양행은 지난 9일 동화책 낭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위한 것으로 유한양행 임직원들이 오디오 북을 제작해 기부하는 활동이다. 오디오 북은 음성도서 청취용 디지털 기기과 함께 서울 동작구 소재 가족센터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한양행



세종대, 학교 밖 실습수업 등 예비 예술인 육성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는 최근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와 예비 예술인 발굴 및 예비 지도자 양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종대는 화곡보건경영고의 예비 예술인 발굴 및 육성과 학교 밖 실습수업을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세종대



서울사이버대, 세티스대학교 등 국제협력 추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멕시코 세티스대학교(CETYS University)와 중국 SIAS 대학교와 지난 11일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의 연구 및 교육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에 진행됐다. (앞줄 왼쪽 세번째)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음

- ▲서영일씨 별세, 서경아·서현아·서선아씨 부친상, 장진모(교보생명 전무)·정지원(팔고나인 대표)·오근철(우리디앤티 부장)씨 장인상=1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15일 특실 2호 변경), 발인 16일 5시20분, 장지 경북 경산 선영, 02-2257-7590
- ▲안인선씨 별세, 이의상·은자·민상(미래정책개발원장)씨 모친상, 김승억(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사무국장)씨 장모상, 이경진(동아일보 기자)·한술(강원대학교 교수)씨 조모상 = 14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장례식장 201호 특실, 발인 16일 오전 7시15분, 031-411-4441
- ▲박현기씨 별세, 박진국(아이티센그룹 부회장, 前 LGC NS 전무)씨 부친상=14일, 서울성모장례장 14호실, 발인 16일

현대차그룹, EV 렌터카 ‘PnC’ 적용... 충전 편의성 높인다

(플러그 앤 차지 테크놀로지)

제주 렌트 고객 차별화 경험 제공 E-pit 충전 비용 지원 이벤트도

현대자동차그룹이 향상된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알리기 위해 EV 렌터카에 ‘플러그 앤 차지 테크놀로지(이하 PnC)’ 기술을 적용한다. 현대차그룹은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주도에 위치한 롯데렌터카에서 운영하는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전기차에 PnC를 적용해 EV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같은 기간 해당 차량을 단기 렌트하는 고객에게 E-pit 초고속 충전 비용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주도 최초의 E-pit 충전소 ‘새빌 E-pit’

PnC는 충전 케이블을 꽂기만 하면 회원 인증부터 충전과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 소재 롯데렌터카에서 운영하는 PnC 적용 전기차는 ▲현대차 아

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기아 EV6, EV9, 니로 EV ▲제네시스 GV60, G80 전동화 모델, GV70 전동화 모델 9종이다. 대상 차량을 단기 렌트한 고객이

제주도 E-pit 충전소 내 260킬로와트(kW)급 충전기에서 초고속충전을 할 경우 차량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고객은 충전기 화면의 ‘PnC 충전’ 버튼을 선택해 별도 인증 및 결제 과정 없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제주도에 ▲새빌 E-pit(제주시 애월읍) ▲하구 하나 로마트 E-pit(제주시 애월읍) ▲동쪽송당 E-pit(제주시 구좌읍) 3개소에서 E-pit 충전기 16기를 운영중이고,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는 286기의 E-pit 충전기를 2025년 500기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SGI서울보증, 사회복지모금회 기부금 10억 전달

아동·청소년 의료비 등 사용 이명순 대표 “상생경영 힘쓸 것”

SGI서울보증은 지난 11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24년 연간 기부금 10억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부금은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의료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지원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후원사업에 연중 사용된다.

각 지역본부 또한 소재지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꾸준히 후원하면서 자체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의 전당에서 열린 ‘2024년 SGI서울보증 사회공헌 기부금 전달식’에서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와 김재록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왼쪽 세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SGI서울보증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천하며 미래세대 및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상생을 지향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상생경영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한국거래소 ‘KRX 퓨처스타’ 모집

한국거래소는 부산지역 금융인재를 육성하고자 부산의 대학생 파생상품스터디그룹인 ‘2024년 KRX 퓨처스타’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퓨처스타(FutureStar)는 미래, 파생상품의 선물을 뜻하는 ‘Future’와 ‘Star’를 합성한 스터디그룹의 명칭으로 대학생들이 미래 파생상품시장의 빛나는 별이 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약 6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서류는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서류심사, 면접 등을 거쳐 5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거래소는 “향후에도 퓨처스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금융중심지 부산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서울시, 17일 ‘동행서울 누리축제’ 개최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 마련

서울시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달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2024 동행서울 누리축제’는 오는 17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다. 축제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최신 IT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서울배경을 접자로 인쇄한 점자형압명서, 자재스펙트럼 장애인 등을 위한 뇌파 안정용 브레인 트레이닝 제품이 소개된



다. 이 자리에서 시는 장애인 이종사할수 있는 직업을 안내하고, 시각 장애인 조향사가 진행하는 ‘감정테라피 향수클래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축제에서는 ‘누구나 벤치’가 공개된다. 성별·나이·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됐다. 벤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2개 연속 설치 시에도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는 형태이다. 시는 올 상반기 중 공원, 대학교, 복지시설 등에 누구나 벤치 30여개를 마련할 예정이다.

4월 28일~5월 6일 꿈의숲 아트센터 드림갤러리에서는 발달장애인 청년작가의 작품 전시회인 ‘내 마음 속의 풍경 : The Scenery in My Eyes’와 함께 도장 찍기, 펀버튼 제작 등의 체험 행사가 운영된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AI케어 다큐멘터리 홍보, 장애 인식 개선 토크 콘서트, 전환기 발달장애인 현장 중심 직업훈련 ‘서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hjk10@



덕성여대, 삼육대, 서경대, 대전대가 4일 삼육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해외취업연수사업 대학연합과정 운영기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덕성여대

덕성여대 해외취업연수사업 고도화

덕성여자대학교는 4일 삼육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삼육대, 대전대, 서경대와 해외취업연수사업 대학연합과정 운영기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해외취업연수사업 대학연합과정 운영기관으로 연속 선정됨에 따라 대학간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합 연수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덕성여대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취 학생들이 현지에서 적응·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ihj@

한일시멘트, ‘격주 주4일제’ 도입

충북 단양공장 우선 적용

한일시멘트가 시멘트업계 최초로 이달부터 격주로 ‘주4일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한 격주 주4일제는 시멘트 생산 공장인 충북 단양공장에 우선 적용한다. 2주간 근무 일수 10일 중 8일 동안 1시간씩 더 근무하

고 격주로 금요일에 쉬는 방식이다. 단, 생산직 근로자들은 교대 근무 형태가 유지된다.

한일시멘트는 격주 주4일제 시행으로 직원들의 효율적인 자기계발과 휴식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 접근성을 직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MZ세대 신입사원의 고충을 해소하고, 주말과 휴

일을 충분히 활용해 워라벨을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향후 공장 내 거주 및 생활 인프라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일시멘트 전근직 사장은 “제조업에서도 지속가능 기업을 위한 원동력은 조직문화”라며 “다양성이 존중되고 능력을 인정받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